

예절의 근본정신을 알고 실천하자.



교장 민 병 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이 말은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미 ‘홀로’가 아니라 ‘함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여러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사람답고 올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해야 합니다. 원만한 인간관계란 혼자서 노력해서 되는 일이 아니며, 모두가 다같이 공통된 예절을 지킬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절이란 사람이 사람답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꼭 필요

한 도리요, 질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예절의 근본 정신은 인간에 대한 존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대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앞으로도 변치 않을 공통된 대원칙입니다. 인간은 귀한 존재입니다. 물론 인간만이 아니라 세상의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모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 가운데에서도 우리 인간은 특히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 어느 것도 지니지 못한 것, 즉 양심과 이성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모든 예의 범절의 근본 정신은 이 존귀한 존재에 대한 깊은 마음과 사랑이 되어 나온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인격존중’이라는 말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는 것이 바로 예절의 근본 정신임은 두 말 할 나위가 없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예의범절이라는 것은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여겨왔듯이 ‘인격 완성의 수단’이요, 동시에 원만한 인간관계를 이루어나가기 위한 수단인 것입니다.

예절이건 규칙이건 혹은 법규이건 간에 인간존중이라는 근본 정신에는 큰 차이가 없습

니다. 단지 예절은 무엇보다도 더욱 민주의 자율성에 의지한다는 점에서 다른 것들과 구분됩니다. 우리는 그런 고귀한 정신이 바탕에 있는지 깨닫지 못하고 예절을 그저 귀찮은 것이니, 형식적인 것이니 하면서 쉽게 넘겨 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 순간에 예절을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절을 지키며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일이며, 그 이유는 인간이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이루고 더불어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세상에 태어나 자기 삶을 의미있게 살아보고자 노력하며 다른 사람으로부터도 하나의 인격체로서 대접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남의 인격을 무시하고 나만 홀로 인격을 존중받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내가 대접 받기 위해서는 먼저 그만큼 최선을 다해 상대방도 대접해 주어야 합니다.

어떻게 대접할 것인가? 일상 생활속에서 우리가 늘 숨을 쉬듯 자연스럽게 몸에 베어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서로가 예절을 지키는 일입니다. 예절을 지킴으로써 비로소 내가 남의 인격을 존중해 줄 수 있고 덩달아

내 인격도 존중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는 옛부터 '동방예의지국'으로 불리어 왔습니다. 우리의 선조들은 이러한 칭송을 긍지로 삼고 살아 왔습니다. 매사에 동방예의지국의 백성답게 올바르게 살고자 했으며 그 전통을 깊이 남기려고 노력했습니다.

따라서 예의범절을 가르치고 배우는 데에 무엇보다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예절은 문화의 한 부분이라 하였습니다. 예절을 잘 지키는 전통은 바로 우리 고유의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조상이 그랬던 것처럼 가치관이 다양해지고 나날이 발전해 가는 현대사회에서 우리의 문화인 예절 바른 생활을 긍지를 갖고 지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

예절이란

사람이 사람답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꼭 필요한 도리요,

질서라는 것을…

”